東大新聞

發行人 鄭明燁 / 編輯人 金聖培 / 印刷人 孫道晟 / 發行所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23) 3130—9 / 本社直通 (22) 8498

鐵條網撤去를指示

學校當局要求받아들여

本校隣接國有林不法占據事件

本校隣接國有林 不法占據事件에대하여 학교당국은 그간關係당국에 公正한行政措置를 취해달라는 요지의請願書를 보내는한편 總學生會도 陳情書를 제출하여 善處를바라오던중 7일하오 金玄玉처음 特別市廳이 직접來校하여 말씀이되고있는 現地를 답사하고 學校당국의 要求가 정당한것을確認, 답장에 가설된 철조망을 철거토록 管下中區廳에 指示한것으로 알려져 개운치않은 여운을남겼다.

이날 金市長은 國有林에 土砂流出방지라는 美名아래 닦장과 철조망을 가설한本校인접 現地를 金學生處長과 中區廳長의 案內로 踏査한 다음 趙總長과 만나 「學校當局의 要求대로 是正」하겠다고 말씀하였다.

학교당국은 본교 인접지인 南山국유림이 賣買수속및 拂下申請書를 지난 2月에 제출한바 있어나 그런데 三護財閥 정재호씨가 자기주택정원을 확장키위해 무허가상태로 구축도중 관할서에 제지로 미완성된채 중단, 7월26일 中區廳長은 행정대집행법을 적용 强制撤去했으나 8월20일 수십명의 경찰관보호하에 토사유출 방지라는 미명으로 부로크담장과 철조망을 가설, 말썽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학교당국과 총학생회는 관계당국에 철거시를 각각 제출하여달라는 요지의 請願書를 보내는한편 學生會는 지난 2月에 제출한바 있어나.

학교당국은 본교의 拂下豫定地로서 鐵條網撤去 및 철거토록요청 一部 學生들은 鐵條網을 보았었다.

碩士論文提出希望者

來26일綜合試驗

大學院教務課에서는 今學期에 碩士學位論文을 제출하고자하는 學生에게 새로이改正된 학칙에의거해서오는26일실시되는 課程綜合試驗에 먼저 응시하도록 시달했다. 그런데 이試驗에통과된 學生에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부여하는데 논문마감은 11월말까지이다.

한편 교무과에서는 마감후에 제출되는 학위논문은 明年一學期末에 심사에회부됨으로 論文提出者의 각별한 期日엄수를바라고있다.

日語特講

10日부터

동림대학 학생회에서는 10월1일부터 日語特講을 B204강의실에서 실시한다.

매일하오5시부터 실시되는이 특강은 정문용씨를 초빙하여 1월까지 계속되며라고 하는데 교재는 「日本語研究」이다.

훈이스大領就任

齒科診療所顧問

「뉴욕」서 사진전시도

<훈이스大領>

한국 美軍軍顧問團 치과고문 H·훈이스대령은 지난28일 본교건치료소 부설 치과진료소 고문으로취임하다.

이로써 「마셜·플즈」박사의 귀국에따라 「훈이스」대령이 앞으로 치과진료소의 적극적인 후원을 맡게되었다.

한편 4일 한미재단에서 발표한바에의하면 「뉴욕」市 公報館(USIS)에서는본교 치과의료소의 시설과현황에대한 사진전시회를 불원간 개최하리라한다.

碩士論文提出希望者

來26일綜合試驗

大學院教務課에서는 今學期에 碩士學位論文을 제출하고자하는 學生에게 새로이改正된 학칙에의거해서오는26일실시되는 課程綜合試驗에 먼저 응시하도록 시달했다. 그런데 이試驗에통과된 學生에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부여하는데 논문마감은 11월말까지이다.

한편 교무과에서는 마감후에 제출되는 학위논문은 明年一學期末에 심사에회부됨으로 論文提出者의 각별한 期日엄수를바라고있다.

日語特講

10日부터

동림대학 학생회에서는 10월1일부터 日語特講을 B204강의실에서 실시한다.

매일하오5시부터 실시되는이 특강은 정문용씨를 초빙하여 1월까지 계속되며라고 하는데 교재는 「日本語研究」이다.

梁榮黨君入選

國旗寫眞部門서

경기도 梁榮黨(문4) 군은 제15回展에서 사진부문에 「한가위」로입선했다. 지난9월30일부터 7일간 계속된 국전심사는 7개부문 1천9백36점의 접수작품 가운데 6백54점을입선, 85점을 특상작으로선정했다. 국전은 오는11월오후2시 경복궁미술관에서 개관식및 시상식을갖고 12일부터 30일동안 일반에 공개된다. 그런데 금년도출품작의수준은 전반적으로예년에비해 훨씬높아졌다고하며 국전출품을시작한지 3년만에처음으로 사진부문에서 國務總理賞을 획득한 것은특기할만하다.

訓鍊査閱실시

13日, 奬忠公園서

2년간의 군사훈련을 끝 동안에 쌓아온 교육을 총 결코 진리의 수시로 법회 갖고 진리의 길을 찾 기위하여 학생회관을 건립 하자는 동의안을 만장일치 로 가결하고 하생회관건립 기금 모금추진위원회를 구 성, 위원장에 閔健弘(印 哲·3)군을 선출하였다.

이어 경주 佛國寺의 석가 탑을 위시한 천년고찰 문 화재 도굴범규탄결의문을채 택했으며 「불교총학생원」건 립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양일간 열전을 벌였던 莊 長原잼랄배구대회에 출전한 본교팀은 작년도에 우승을 차지한 建國팀을 2대1로 물리쳤으나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 지부와의 대전에서 3대1로 석패하고말았다.

演公

卒業

말은많고問題點많다

「아더·밀러」作「쎄일즈맨의 죽음」

國立劇場서盛況이뤄

「아더·밀러」作「쎄일즈맨의 죽음」을 올려하여 연극의 原型과 그본질을 더욱하고 새로운 연극의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공연은 金鍾日연출로 金完興, 趙光一, 張旋鎬, 甲鉉來운동 13명이 출연하여 국가사회의 한단면을 심각히 보여준 「밀러」의 극적 노력을 다양성있고 치밀한 연기로 많은관객의 격찬속에 막을내렸다.

그런데 관계敎授들은 觀劇所感에서 「연출기간이 짧아서 安全히 作品을 소화못한點」이 눈에띄는게 短點이지하지만 大學演劇의 방향을 提示하는 의욕은 높이 評價한다라하고 말하고 있다.

法政大 朴在昇(碁2)군

아세아大會레슬링選手로

朴在昇君出戰

楊武相君은國體에

<朴在昇선수>

서울린 제5회아세아레슬링대회 전 아마레슬링선수 최종선 발전에서 자유형 「라이트」급에서 우승, 출전자격을획득했다. 최종선발전에 참가한 明宇福(碁2) 선수는 「플라이」급에, 張鍾武(法2) 선수는 「페더」급에출전하고 비교 ①小乘은 그 주관적자 (此岸) 법부종생들을 출 절고, 밝고, 깨달고, 초월 한 저세계(彼岸)에로인 도하여 구제하는데 목적 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敎理上, 차이는 어떠한가 小乘(Hinyana)과 大乘에서 小乘이라하고 한꺼번에 (Mahayana)의 둘 서 入滅하신뒤 四·五世 紀頃까지의원 시적 불교를 小乘이라하고 그이후의 날 달한 불교를 大乘이라고한 날이 이 대개 다음 몇가지로 ①소승은 설명방식이 있으니, 즉 守的이고, 形式的이고, 현 主知主義이고 大乘은실천 的이고 進步的이고, 內容 修行은 生死를 두려워하 ②대승은 비구를 중심으로 한 일파 출투의 僧이었으나 大乘은 보살을중심으로하여 전문적인 사람 그러면 小乘과 大乘의 과 그렇지않는것의 두가 지로 구분함이 다르고 ③ 戒律觀에있어서小乘은문을 지키 고있는不法的인남자도 조 속한 시일내에 철거토록계 획 그래도 응하지 않은 여운을남겼다.

海外留學生試驗

13日까지書類提出

문교부에서실시하는 해외 유학생자격고시에 응시코자 하는자랑은 응시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등을 13일까지 학생과에 제출하여야된다고한다. 그런데 이번시험은 11월1일, 자연계는 11월2일실시한다.

◇土曜法會◇

▲演題=禪의多樣性

▲法師=吞虛스님

▲日時=15日午後3時

▲場所=大學禪院

今週一言

人間은중요한 事物을 결코 곰곰히 생각해 보지않는다

—<괴에테>—

圖書閱覽統計

文學部門이首位

독서 「씨즌」에 접어들었던 지난9월중 中央圖書館 閱覽圖書및 人員統計를 보면 열람총인원 8천5백85명에 文學部門이 3백11권으로首位 經濟部門이 2백75권으로 다음가는 열람 책수를보였다. 주요 각부문 별열람도서는 다음과같다. ▲文學=3백11 ▲經濟=2백75 ▲語學=2백15 ▲歷史=2백13 ▲政法=1백84 ▲宗教=95 ▲哲學=94

敎生實習

大東中·商高서

본교 67학년도 졸업예정자가운데 교직과목을수한 학생들은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大東中·商高에서 敎生實習을한다.

「아이어」大使講演會盛況

文理大史學會는 지난4日午前10時 A108강의실에서 주한「오스트리아」대사 「하르트르마이어」법학박사를 초빙코 「오스트리아의 大學制度와 學生活」에대한 강연을가졌다. 「하르트르마이어」대사는 「오스트리아」大學制度의특이성과 大學生들의근면성을 설명하면서 「한국대학생들이 자치적인것에 많은관심을 기우려야되는것은 말할 수없는 일이겠으나 학생의 신분을 이탈해서는 안될것이다」라고말했다.

(3面참조)

奬學生會員

野遊會가져

장학생회에서는 새학기에 접어들어 교내의 학풍을쇄신코자 지난 9일 우이동에서 야유회를 갖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社說

教育週間과教育的當面課題

6일부터 12일까지는 제14회째맞는 교육주간으로 대한교련을비롯한 전국각시도별 교육기관에서는 각종 행사를벌리고있다. 특히 대한교련은 「의무교육을위한 재정교부금법 개악반대」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개정」을위한 청원을각각 국회에제출함으로써 이에대한 적극적인운동을 펴나가기로했다. 그중 「의무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악반대」는 이번교육주간의 기본행사가운데 하나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이란 의무교육비의 재원이부족한 각시군에서소요되는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의무교육의정상적운영을 기하기위하여 재정법으로써 당해년의소득세와 입장세수입중 1백분의50을 의무교육비로 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정부는 67년도이후의 세수입증대를 예상하고최근 이것을1백분의 40으로내리도록 하는내용의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

동법은바로 작년에42%에서 로개정되었는데 이제또다시 40%로줄임으로써 문교정책의 후퇴성을늘어내고있으며 다시 개정된다면 의무교육5개년계획의 개정이 불가피 할것이다.

경제기획원당국은 주로을성세원의 포화과 경제성장에의한 소득세, 입장세수입의 대폭적인증대에바라 년도부터 10%를줄이드라도 절대적 자체는 오히려증대된다는것이다. 또한 기러한처사로서 의무교육의정상 화를위한 시책으로는교원의 처우개선, 자질향상을위한 연구제도, 시설의확충등 당면문제가많다. 특히 학급당수용인원이 80~90명에이르고2 3, 제가 불가피한실정에비추어부 록교실과 노후교사수리는 시급한문 제이다. 이모두가 재정부족으로인하여 처리되지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의무교육의 충대성과 적령아동의 급증에따른 재정적 뒷받침을위해 재정부금법개정을 강대하는 교육계의 소리를 묵살해서는안될것이다.

○ ○

원래 교육주간의 설정은 195 3년에 실현된것으로서 그후 해마다 한번씩 여러가지행사를 이 교육주간에 열이고있는데 그주요목표 는 ①교육이념의 고조 ②민주교육의 실천및 개선 ③교육의 중요성 의 환기 ④교육자간의 동지적 친화 단결 ⑤ 노동의 면학열고취등에집 약되고있는 것이다.

이번 교련당국은 「조국의 근대화를위한 교육계획」이란 스로간을내 걸고 앞서 말한 다섯가지 실천목 표를 달성하기위하여 못있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있는 것이다. 특히 금년에있어서는 지난3월 우니나라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회의의하나 인 제15차 세계교직자대회를 열고 또 이를 성공리에 끝맺음으로써 교육에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국제적인 지평까지 밝게된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교육계가 당면한 현실이란 너무나 냉혹하고 심각하다는사실을 부인할길이없다. 그저항 데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주간행사만 으로는 우리의 어려운현실을 타개 할길이없다. 의무교육의 팽창적와파 탄현상, 교육시설의 침체 양적 미 비, 생계를 위협하는 교원들의 적 자처우, 또 이런것들으로인하여 파생되는 사도의 타락과 문란등 이루 헤아릴수없는 숫한과제가 산적해있으며 그리고 날로 격심해가는 학교차와 모순을 극복하지못하는입 시제도등 무원칙하고 일관성이없는 졸렬한 본교행정은 바야흐로 교육 지옥을 이루고있어 교육의 근본이념을 해치고있을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을 흔들리게하고있 는실정이다.

더구나 6·3사태 이후 멀들대로 멍든 대학교육의 조속한 정상 화를 본단을통하여 심입 문교부장관 에게기대한바있거니와 이번교육주간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당면하고있 는 교육적 문제점과 급박한 현실 을 교육자신이 냉정히 검토분석 하여 민업고 바람찬 개혁의 기치 를 들고 앞차고 보람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할것이다.

第七期 ROTC, 20日로마감

候補生募集

高度의 知的수준을 갖추고 지도적 力量을 구비한 현역및 예비역장교를 획득 하기위한 목적으로 創設된 ROTC에서는 제7期生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本校 112 ROTC 敎官團에서는 현재 候補生選抗要領에依해지 원서를 접수하고있는데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이다.

學訓團의 지원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67년 신학기에 3학년으로 진학예정자, ②신체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한자 ③경범죄이상의처벌을 받지 않은자 ④1944년 3월1일이후 출생자라야한다.

지원서류는 지원서 선약서, 신원보증서, 병적확인증명서, 신원진술서, 호적초본, 성적증명서 사진 3매등이다.

候補生 선발을위한 심사는 2차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1차 선발은 학업성적심사와 면접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며, 2차선발은 신체검사및 신원조회로서 11월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다고한다.

그에따라 지원자들은 敎官團長을 포함한 敎官과學校職員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면접고사를 거친후 合格者에 限해 陸軍病院에서 신체검사를 받게되며最終合格者發表는 내년 3월 初라한다.

靜 令

見聞記者

宣朴 文泰 敏遠 宋 樂 變

(10月一日字)

研究時經

特輯 言論의機能과逆機能

10月號 값50원

財閥과 言論의 公益性 吳周煥

財閥과 言論의 分離 言論의 獨自性確保는 可能한가?

言論과 國家開發 盧錫瓚

言論과 自由와 新聞의 責任은 表裏關係에 서있다.

輿論과 政治의 函數關係 任洪彬

그릇된 여론이 政治를 올바른 方向으로 어끌수는 없다.

新聞의 「獨自性」 洪承勉

新聞의 獨自性은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爭取하는 것이다.

輿論形成과 新聞의 指導性 郭福山

新聞은 「零의狀態下」에서 운동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新聞·新聞人·讀者 趙世煥

한국신문의 悲劇, 그 뿌리깊은 矛盾點을 헤쳐 본다.

構造와 新聞의 成長 愼根縡

成長은 政治構造와 密接한 相關關係에 있다.

政治構 新聞의 成長은 政治構造와 密接한 相關關係에 있다.

財閥의 言論支配 林鍾哲

第四階級이 財閥의 支配에 의하여 從屬化된다면……

言論의 自由와 責任 朴權相

言論의 올바른 姿勢確立을 위하여 科學的인 調査方法을 通한 內容과 效果分析을 試圖해 보면……

言論의 內容과 效果分析 金圭煥

韓國言論의 內容과 效果分析을 中心으로 分析해 본 新生國言論의 갈길.

言論의 망해 칼理論을 中心으로 分析해 본 新生國言論의 갈길.

韓國言論

<이달의 隨想>

오늘의賢明은내일의繁榮 金斗憲

—朴正熙大統領의 明年度施政演說全文—

新年度의 經濟탄젠트 陳鳳鉉

第二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 第一次年度의 豫算案을 얼마만큼의 成長을 약속하는가? 이를 分析해본다.

行政發展의 沮害要素 朴泰俊

文鴻柱

大學敎授들의 새覺悟 朴一慶

歐洲—走馬看山記 世界의旅窓

統·韓方策의 展開過程 文昌周

P·S콩크리트의 利用과 經濟性 李鶴紋

女性政治敎育과 UN 孫鳳淑

寫眞畫報·엘리뜨

對UN政策言解剖한다 金溶植 李漢基 李元雨

談鼎

<이달의 隨想>

世宗路一番地 朴聖煥

(特別連載)

資料

第二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

金剛山·成慶麟 白翎島·金東晟

關東紀行·玄勝鍾 佛國寺·朴在森

榮州浮石寺·趙容萬

世界 一、危機속의 第二次UN總會

二、맥나마라 美國防長官의 現狀診斷

三、狂的인 中共의 「紅衛隊旋風」

世潮

韓國政經研究所

各道支部 春川3417번 濟州98번 大田②4496 全州3972번 光州②2224 大邱②3941 釜山④1101

<九月號 再版 賣盡謝禮>

學校文法統一에 대하여

한글 頒布 五二〇周年을 맞아

崔 世 和

『한글』頒布 52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세종대왕이 우리 國民生活 특히 語文生活과 民族文化에 끼치신 거룩한 遺德을 추앙하는 마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짐을 느낀다.

대왕이 崔萬理·李碩祖 등 강력한 反對에 부딪치자, 그들을 한때 拘禁까지 하여 이들 排制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先見之明이 있었음은 확고부동한 主見에 의한 것으로서 만일 이때에 그들의 반대 여론에 말려들어 우리의 고유문자인 『한글』이 창제, 頒布되지 않았던들 우리는 끝내 우리 文字를 갖지 못하여 우리의 語文生活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나아가 진정한 민족문화 形成도 없었을는지 모르는 일이니, 생각이 이에 미칠 때, 참으로 毛髮이 悚然해진다. 520년 전 聖君 세종대왕은 우리 語文生活의 그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지금 우리는 몇 명하게 문화민족임을 자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그 聖德을 흠모함이 날로 더하지 않으랴!

文字는 그 본질 白體가 動的이고 순간적인 音聲連結인 言語를, 固定化하기 위해 쓰이는, 그와 대응하는 平面圖形의 체계이다. 따라서 文字는 音聲言語를 재생함뿐 아니라, 사상을 이 바 제2의 언어라고 할수 있는 귀중한 人間의 자산이다.

文法은 人間의 사상·감정을 표현하기위한 言語에 內有하는 법칙이거니와 특히 學校文法은 언어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정의하고 분류하고 해석·설명하는 科學文法의 성과에 기대여 판단·제정한 規範文法으로서 실용에 即應하여, 지금으로부터 십년전 이래 비록 이 案이 確定,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그 成果는 한 사회의 습관으로서 그 한 사회의 白體가 動的인 言語를, 固定化하기 위해 쓰인 音聲連結인 文字와 대응하는 平面圖形의 체계이다. 따라서 文字는 音聲言語를 재생함뿐 아니라, 사상을 이 해하게 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초월하는 사회적 역사는 人間 精神의 진보의 기념비인 사회의 문명의 기념비이다.

文字의 역사는 人間 진보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言語와 文字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가지 가장큰 특권이요, 文字는 言語와 체계이나, 이른바 言語는 인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한 것이요, 文字는 이를 문에 文字의 역사는 人間 진보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文法은 言語의 규범이요 文字의 규범이다. 따라서 學校文法은 國語의 규범이요 文字의 규범이다. 그러므로 문법교육의 효과를 거둘수있는 것이어야 할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8·15解放이후 한동안은 學校文法에 대한 별다른 시비가 없더니 문교부에서 교과서 檢認定制가 실시되자 문법술어와 체계가 다투어 등장하였고 검인정교과서로 등장하였고 거기에다 여러 文法敎科書가

明年度大學入試 必須科目을위한 가이드

우리東大의 「入試國語」는 現代文보다 古文과 漢文15의比率로 出題된줄로 해서 取材하고 개다가漢學史가 드세다는 소문이 자자하다。허나 사실은그 렇지도않다。이는 漢文이 주는 공연한 重壓때문인줄로 안다。곧 문제자체부터 漢字를 섞어서出題하고 現代文 관계문제에서도 어렵다는 꼬리표가붙은 글을 國漢文混用 文字쓰기를 겸들이는 탓인 學史가 드세다는 소문이 討해보면、現代文50 古文15 文學史10 漢文10 作 文學의이고 科學的인 문제 史는 檢認定의 古典敎材 적어 숫재 포기하지않는 努力에비겨 點數가 너무 많다。다만 한가지 他校와 判奬한점은 設立趣旨에따르는 佛敎關係문제가 나옴이라 할까。

○…最高학부로의 門。大學入試가앞으로 4개월 남짓 남았다。이최고학부…○
○…의門은 실상지랑을 원하는 學生들에비하면 너무나좁다。그러기에치…○
○…열한 경쟁이 불게마련。따라서 이문을통과하기 위하여는 피나는노…○
○…력이 따라야함은 물론이다。이러한 노력이노력으로끝이는 일이 비…○
○…일비재함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력이 헛것으로 되지않기 위해서는…○
○…적절함이 있게 마련이다。이에 本社는 두敎授의 必須科目 두부문…○
○…(英語·國語(1))에대한"애드바이스"를 얻어 學生들에게 참고…○
○…로 제공코자한다。<編輯者註>

國語

<文理大國文科敎授> 李 丙 疇

첫째 漢字쓰기는 어려운漢字보다도 生活語인 「리므로、흘들리기 「필세」라면 해답은 「흔들 「리므로」를 안것이 오히려 화근이다。차라리 한글로쓰면 다쓸수있는實力 없이 漢字를 쓰면 다 採點은 받지 않는다。영어 출제에서 영어의 문장을 지어야할필요가있고그런데가 문제가 많아졌다。마땅히 반가운일이나 갑째 格만 높인다고 좋은것만은 아니다。一流에 신상실라。이는바 高校의 國語敎育에 미치는 영향은 아예 의면한도한 느낌이 있어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그런方法으로 敎年間 出題가 계속되는 동안에 學生들은 英語文法의 短片的知識을 吸收하는데 급급했고 英文의 意味파악력이나 文力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그때서 옛날로還原하는 것이 아니라 文法의 지식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飜譯과 作文이 되는것은 아니다。그와비슷한 얘기가될수있는것은 英語熟語와 단어만 가지고 잔문이나 讀書가 안되는것이다。

英語

<文理一英文科敎授> 李 昌 培

作文力을 기르는 목적이 더重要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그것은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영어를 듣고 말하는 기회보다는 책을 읽고 영어의 문장을 지어야할필요가있고그런데가 많이 나와야 할것으로 생각이 된다。

文法에 치중말고 읽기와作文을우선해야

그리고 그런능력의 기본적 바탕이되는 文法問題는 약간은 나와야할것이다。흔히 한생들이 英語공부의 主力을 문법학습에 두는것은 큰 잘못이다。그것이 기초는될수있지만 그것이 목적이될수는 없는것이다。아무리 약간은 날수있겠지만 무엇보다는 體力을 테스트하는 문제와 作文問題가 많이 나와야 할것으로 생각이 된다。

題는 약간은 나와야할것이다。흔히 한생들이 英語공부의 主力을 문법학습에 두는것은 큰 잘못이다。그것이 기초는될수있지만 그것이 목적이될수는 없는것이다。아무리 文法의 지식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飜譯과 作文이 되는것은 아니다。그와비슷한 얘기가될수있는것은 英語熟語와 단어만 가지고 잔문이나 讀書가 안되는것이다。

敎科書中心출제 基礎에 基準두어

<文理大國文科敎授> 李 昌 培

문제가 많아졌다。마땅히 반가운일이나 갑째 格만 높인다고 좋은것만은 아니다。一流에 신상실라。이는바 高校의 國語敎育에 미치는 영향은 아예 의면한도한 느낌이 있어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그런方法으로 敎年間 出題가 계속되는 동안에 學生들은 英語文法의 短片的知識을 吸收하는데 급급했고 英文의 意味파악력이나 文力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그때서 옛날로還原하는 것이 아니라 文法의 지식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飜譯과 作文이 되는것은 아니다。그와비슷한 얘기가될수있는것은 英語熟語와 단어만 가지고 잔문이나 讀書가 안되는것이다。

敎科書中心출제 基礎에 基準두어

<文理大國文科敎授> 李 丙 疇

첫째 漢字쓰기는 어려운漢字보다도 生活語인 「리므로、흘들리기 「필세」라면 해답은 「흔들 「리므로」를 안것이 오히려 화근이다。차라리 한글로쓰면 다쓸수있는實力 없이 漢字를 쓰면 다 採點은 받지 않는다。영어 출제에서 영어의 문장을 지어야할필요가있고그런데가 문제가 많아졌다。마땅히 반가운일이나 갑째 格만 높인다고 좋은것만은 아니다。一流에 신상실라。이는바 高校의 國語敎育에 미치는 영향은 아예 의면한도한 느낌이 있어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그런方法으로 敎年間 出題가 계속되는 동안에 學生들은 英語文法의 短片的知識을 吸收하는데 급급했고 英文의 意味파악력이나 文力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그때서 옛날로還原하는 것이 아니라 文法의 지식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飜譯과 作文이 되는것은 아니다。그와비슷한 얘기가될수있는것은 英語熟語와 단어만 가지고 잔문이나 讀書가 안되는것이다。

普照國師의 壇經跋文

<日本駒澤大學博士課程> 金□知見□

日本 日本印度學佛敎史學會 通信 第17回學術大會參加記

일본의 불교관계 學會로는 「일본불교학회」 「일본불교사학회」 「印度學불교학회」 등을 들수있다。

첫째、「일본불교학회」는 各宗派의 宗團출신 승려로구성되어있다。研究發表는 같은 문제를 내걸고 자기종파의 입장에서 문제를 解明하는것이 특색이다。그래서 共同研究같은 인상이짙으며 宗派를 대표하여 宗旨를 구명한다고할수있다。

둘째、「일본불교사학회」는 京都를중심으로 모임을가지고 있는데 작년 花園大學에서 열린 大會에는 早稻田、東洋文庫등에서 관계학자들이 참가했었다。여기서는 자기 專攻에따라 자유롭게研究發表를하며、그분위기는 극히 家族的이다。

셋째、「일본印度學불교학회」는 전국 70여개의 國公、私立大學이 가입하고있으며 회원도 1780여명이다。

필자는 渡日후 줄곧 研究發表會를 방청했으며 금년에는 研究發表를하라는지시를 받게된것이다。

이학회의 學術大會는해가갈수록 성황을 이룬다。금년으로 學會발족 15주년、學術大會만도 17회째이며 년간二권의 두툼한 논문집이나오고있다。특히 일본의불교계에서는 이 학술대회를 名節中 名節로 생각하는경향이다。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焦點은 딴데 있다고 봐서 부방할것이라 했다。前者는 參觀을 지도하는 분이고 後者는 文學部長겸 宗學연구所長이다。두분다 忠의 語錄을 引用하고 있으나 어떤 결론적인 解明은 하고 있지못했다。사실 壇經研究는 자칭하면 禪宗의 史料研究를 벗어나지못하거나 六祖慧能의 大全의 宗旨가 서야할 地盤이 書誌學에 앙보하도록、되지가 는 本末이 전도된 學解的 태도를 어떻게하면 本然의 자세로 是正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대한 비판은 매우 많으나 그의 先燈은 慧忠國師라고 전해온다。했고 구체바이시(전林) 교수는 「道元禪師의 壇經否定은 壇經 元禪師의 壇經跋文은 壇經 이것을 問題삼은것이다。 즉 壇經은 僞書라고 지적한 것이다。이것을 일본의 臨濟宗과 曹洞宗이에서 立場을 달리한 原因이기도 하다。

사가이(酒井德元) 교수는 「六祖壇經에 있어서의 意義」에서 「永平高祖(道元)가 大鎭富祖(慧能)라고尊仰했으니 우리도 宗祖의道에 順해서 敬慕하고 있으나 그 壇經이 僞書고한다면 어떻수가 없다。壇經에 대한 비판은 매우 많으나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焦點은 딴데 있다고 봐서 부방할것이라 했다。前者는 參觀을 지도하는 분이고 後者는 文學部長겸 宗學연구所長이다。두분다 忠의 語錄을 引用하고 있으나 어떤 결론적인 解明은 하고 있지못했다。사실 壇經研究는 자칭하면 禪宗의 史料研究를 벗어나지못하거나 六祖慧能의 大全의 宗旨가 서야할 地盤이 書誌學에 앙보하도록、되지가 는 本末이 전도된 學解的 태도를 어떻게하면 本然의 자세로 是正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대한 비판은 매우 많으나 그의 先燈은 慧忠國師라고 전해온다。했고 구체바이시(전林) 교수는 「道元禪師의 壇經否定은 壇經

新進보다精力的인 老學者 會員만千七百餘、八部門나눠 壇經의 讚揚과 否定문제 삼아

학술대회 이모저모

지난 4일 午前10時에 서울시립대학 강당에서 수한 「오스트리아」대사 「하르트르마이어」 「오스트리아의 大學제도와 學生生活」에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文理大史學科가 마련、한시장에서 열린 同강연회의 요지를 抄錄하여 「오스트리아」 學生生活의일단을소개키로한다。【編】

○…『아직도 學園에는 불차별에 운동화를 신지 데모요인이 가시지 않았으면 缺席으로 인정하다。』는 관계당국의 이 아기에 『學園査察기미 역시 가시지 않아 파장과 장이라』는 캠퍼스변에 나다。

구내매점에서는 때를놓 치지 않고 『피장파장인데뭘』 하는듯 운동화를 뒤덮은 나 여하튼 돈 10원씩이가 그리 쉬운것이닌모양。

○…『혹자라도 때려 부수겠다。』고 학생간부 연석회의 상에서 분교인 접탄청사건에 5일까지기 한 학교인접탄 장사진으로先 峰에서 열을 올렸던法科3 年朴某君은어느날아침自己 집門前에서某가판가동 찔차에실려가서長時間에걸 친洗腦를(?) 받았다나애 기거리가 될수밖에。

○…체육시간이면 운동 장단이 정작 해야할운동 은 도 못대는 형편이니박 한일!。

李會長은『회의항때보다 狀況이 많이 달라졌다』고 술그머니辯을늘어놓았 지만公約履行이란힘든일。

○…본보 335호 3면에 실렸던 「학생자치회비·어떻게 쓰여졌나」의 반응으로 본사 전화통은 불이 날지경。

「야 그 記事 어떤새끼가 썼나?」로부터 비롯하여 온갖 욕설을 퍼부어 귓전이 따거웠는데 잘못한 일도 잘했다고추켜주어야 잠잠할판인가。

○…『피장파장인데뭘』 헌운동화 내밀어골치 ○

칠세라 운동화 貸與業(한부 투쟁을 의첨던 李會長은 『이번

米糠의 油脂分에 對하여

宋 正 春

食品세미나發表論文

이글은 지난9월23일 제1회 食品세미나에서 발표된 學生들의 硏究論文중에서 優秀作을 골라 그 要旨를 간추린것이다.

1、油脂資源開發의 必要性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습관과 풍물성油脂資源이 貧弱한 관계로 구미각국에비하여 食用油脂의 소비량이 극히 적다。

食用油脂는 營養上「칼로리」源으로서 또 필수脂肪酸의 給源으로서 중요하다는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국민1人當 1日 食用油脂의 섭취량에대하여 확실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잘 알수없으나 古來로 食用油로서 참깨기름 들깨기름을 주로 이용하고있으며 이밖에 油菜油 콩기름 낙화생기름등을 들수있을것이다。이러한 油脂作物의 생산량을보면 다음表와같다。

種目	生産量
油菜油	2,630㎏
들기름	1,999
참기름	1,232
콩기름	1,780
낙화생油	1,200㎏
들깨기름	9
참깨기름	1,143
Total	9,369㎏

한국의油脂生産量 1966年度

上記생산된 油脂資源作物을 모두 搾油하여 食用油로 이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국민 1人當 1日 食用油의 섭취량을 推算하여 본다면 대략 1.5그람內外에 불과한 양밖에 안된다。물론 이밖에 동물성脂肪섭취도 있을것이지만 식물성 食物을 위주로하고있는 우리의 식생활면에서볼때 그다지 대단한 양이못될것이다。그런데 여기 다른나라의 1人當1日 섭취하는油脂量을살펴보면일본18.65그람、멕시코71.23그람、놀웨이71.23그람、화란68.49그람、서독68.49그람、미국60.27그람、미국59.53그람、아세리43.83그람、불란서46.53그람、호주43.83그람이다。食用油 1그람은 9「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있어 糖質과 담백질에 비교하면약 2倍이상의 칼로리를낸다。

따라서 같은 칼로리를食物에서 취할때면 油分이많은 요리를 먹는것이 양을 적게취하여도 되기때문에위장의 부담이 가벼워진다。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빨리 米食편중의 식생활을탈피하여 歐美에 가까운 수준까지 油脂섭취량을 향상시켜야하겠다。

사람이 생활하여 나가는데있어서 油脂의 適定소요량은 어느정도라고하는 定說은없으나 영양학자들은 30그람으로 보고있으며 이30그람은 주식과 부식에서18그람을 취할수있고 남어지 12그람을 食用油에서 취해야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국내의 食用油 수요량을 계산하면 2、500萬人口가 1人當1日 30그람을 適量으로 볼때 연간 食用油의 소요량은 273、750㎏나 된다。이것을 유류작물의 생산량과 대조하여볼때 우리국민의 식생활이 얼마나불충분한가를 상상할수있는것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油脂資源開發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섭취되어야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되며 본건 막대한 外貨를 소비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있는 油脂原料를 국내에서 해결할수있는 방안이시급히 요청되고있다고본다。

2、油糠資源으로본米糖

米糠油(쌀겨기름)는 현재 미개발 油脂資源中에속하고있는 실정이었으나 근래 일본에서 이방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大豆油 油菜油과함께 植物油로서 크게 부각되었음을 보여주고있어 국내 油脂제조공장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있는것이다。즉 米糠油에 대하여 깊은관심을 갖고있는 것이다。그러면 여기서 이米糠油를食用油로 사용할경우 그특성을 고찰하여 보고저한다。

우리나라 미곡생산량을 3百萬㎏으로보고 여기서 米糠생산율을 약8%로 보면 24萬㎏의 米糠을 얻게되는셈이다。이것을 전부 脫脂하며 米糠油를 제조하면粕油의 收率을 60%로보고 米糠油의 수량은 17%로보고 米糠粕의 수량은 23%로 계산하면 4、0、800㎏이 생산되는것이다。

이중에서 食用精製油의 收率을 60%로본다할것같으면 2、4、480㎏의 食用油가 나온다。물론 이계산은 순수한 理論値로서 실제 適用面으로 볼때 불가능한일이라하겠으나 미곡생산국으로서 油脂資源을 米糠에서 개척하는것이 최선의 방책이라생각된다。

그리고 米糠油를 食用油로서 사용하였을경우 다른 食用油에 비하여 조금도손색이없는 食用的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제조업자들은 물론 油脂業者들이 米糠油에 대하여 깊은관심을 갖고있는 것이다。그러면 여기서 이米糠油를食用油로 사용할경우 그특성을 고찰하여 보고저한다。

첫째 米糠油는 Linoleic acid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않다는 것이다。즉 食用油의 주성분인 脂肪酸중에는 공기중의 산소에의해서 대단히 산화되기쉬운것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것이 Linolenic acid이다。이 Linolenic acid가 산화되면 특유한 異臭가 생기고 이것을 다량食하면 구토증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뿐만 아니라 간장기능에 장해를 주기도한다 물론米糠油도조성은 보아 공중의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은 피할수 없지만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3、米糠의 搾油問題

現在 국내에는 米糠油를 제조하고 있는 공장이 대소 20여개소가 있으며 이가운데에는 壓搾式搾油機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많으며 근래에 와서 抽出式의 한 제조공장이 시설되어 가고있다。

이 抽出式은 米糠을 溶媒로 처리하여 油分이많은 요리를 먹는것이 양을 적게취하여도 되기때문에위장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米糠油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한 기틀이 되고있는 것이다。

米糠油는 前述한바같이 국민의 경제면으로 보나 곡발달되어야할 당면한 油脂資源이기는하나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米糠을 製油하고 있는것은 정부가 搗精공장에서 생산되는 搗精米를 搾油하여 이용하도록 정부 뒷받침이 필요할때문에 그수량이 극히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므로 개발방법을 抽出式으로 대치하므로서 米糠油생산을 증대시켜야할것으로 본다。

〈食工科〉

4、米糠의 環境條件에 따른 酸敗現狀

米糠油는 Linoleic acid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않다는 것이다。즉 食用油의 주성분인 脂肪酸중에는 공기중의 산소에의해서 대단히 산화되기쉬운것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것이 Linolenic acid이다。이 Linolenic acid가 산화되면 특유한 異臭가 생기고 이것을 다량食하면 구토증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뿐만 아니라 간장기능에 장해를 주기도한다 물론米糠油도조성은 보아 공